

# 초고령 전남 노인 자전거 사망사고 '요주의'

### 5년간 56명 숨져 전국 5번째 ... 부상도 매년 100명 넘어

### 고령자 사고 증가 추세 속 안전교육 등 대책 마련 절실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 새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24명이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 노인들의 인지·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경찰과 자치단체 등의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민중당 진선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58명이고, 그중 157명(60.9%)이 65세 이상이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지역별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기도가 149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82명)·전북(79명)·서울(78명)·전남(56명)·대구(55명)·경남(52명)·충남(52명)·충북(48명)·강원(34명)·부산(31명)·인천(29명)·광주(24명)·대전(23

명)·울산(9명)·제주(8명)·세종(7명)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3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명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이후 한 자리 숫자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자전거 사고(교통사고·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 등)로 인한 노인 부상자들도 해마다 1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2012년 123명, 2013년 130명, 2014년 144명, 2015년 120명, 2016년 127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연도별 노인 부상자는 2012년, 2013년 각각 143명, 2014년 144명, 2015년 150명, 2016년 132명이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2012년 289명, 2013년 282명, 2014년 283명, 2015년 276명, 2016년 25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7.8%(167명), 56.4%(159명), 59.3%(168명), 59.8%(165명), 60.9%(157명)로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비율이 높은 이유를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인지능력 저하·신속대처 능력 미흡을 꼽았다.

진 의원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고령자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하마터면... 지난 10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남문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나주 방면으로 가던 시내버스가 크레인 차량을 피하려다 LPG 충전소로 돌진, 가스 충전기 등을 들이받았다(왼쪽). 파손된 버스를 견인차량이 옮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크레인 차량과 충돌 시내버스 LPG충전소 들이받아 '아찔'

### 운전자·승객 7명 부상

시내버스가 크레인 차량과 충돌한 뒤 LPG 충전소로 돌진해 운전자와 승객 7명이 다쳤다. 버스가 가스 충전기에 부딪혀 가스가 소량 누출됐으나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 않는 않았다.

11일 광주남부경찰과 광주남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남문장례식장 앞 효덕교차로에서 나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운전자 김모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크레인 차량의 붐대를 들이받고 인근 LPG충전소로 돌진했다. 버스는 충전소 내에 설

치된 가스 충전기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박모(여·20)씨가 왼쪽 다리 골절을 당해 광주의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 승객 5명과 버스 운전자 김씨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소방 당국은 가스 충전기 배관에서 잔류 가스가 누출되자 물을 뿌려 희석시키는 등 현장을 수습했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도로에 나와있던 크레인 차량의 붐대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버스기사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故 김광석씨 부인 오늘 경찰 소환... 딸 사망사건 조사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12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딸 서연양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직접 해명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내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에 서씨가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을 숨기 체 저작권소송을 종로시켰다'며 지난날 서씨를 유기지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도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씨와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서씨에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사는 각각 지난달 27일과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관해 서씨는 최근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서연양 사인이 "폐 질환"으로 표기된 부검감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서 서씨로부터 서연양의 발달장애 관련 진료 기록과 여권 등을 제출받았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김광복씨, 이상호 기자, 서씨가 제출한 자료,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서연양 사망 당시 부검 기록 등을 집중 검토하는 한편 사건 관련 참고인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연남뉴스

## 조폭 출신 포함 보험사기 일당 40명 적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원을 가로챈 전직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9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2억5000만원 상당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출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 일당 4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최모(34)씨와 강모(34)씨, 노모(3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광주 도심에서 자가용과 렌터카, 대포차 등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총 29차례에 걸

쳐 보험금 2억5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차량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 상무지구와 동운교차로, 월산교차로 등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최씨 등은 좌회전만 할 수 있는 1차선에서 무리하게 차선 위반을 하며 직진하는 차량을 몰색한 뒤 2차선에서 직진하는 수법으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 차량 2대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 앞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과 서로 구역을 나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범행 시 이들은 4명이 이상이 차량에 탑승해 합의금을 높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어금니 아빠' 딸 친구 다음날 살해했다

휴대전화서 성관계 동영상도 다가 오후 1시44분 귀가했다. 경찰은 이씨와 딸 진술을 종합할 때 이씨 지시를 받은 딸이 9월30일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고, 딸이 두 번째로 집을 나선 10월1일 오전 11시53분부터 딸이 귀가한 오후 1시44분 사이 이씨가 A양을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11일 서울 중앙경찰에 따르면 살해당한 피해자 A양은 지난달 30일 낮 12시20분 이씨 딸과 함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이씨 자택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딸은 같은 날 오후 3시40분 집을 나갔다. 이씨는 4시간 뒤인 오후 7시48분 딸을 데리러 나가 오후 8시14분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씨 딸은 다음날인 10월1일 오전 11시53분 다시 집을 나갔

다. A양은 이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도 다수 발견돼 성매매 등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다만 이씨가 A양이 24시간 가까이 잠든 사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 그와 관련한 의혹만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오는 13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세월호 진흙 분리 중 사람 뼈 1점 수습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조각 1점이 발견됐다.

11일 세월호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40분께 세월호 리프팅 빔 밑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뼈조각 1점을 수습했다. 리프

팅 빔은 세월호의 선체 인양을 위해 설치한 받침대다.

발견된 유해는 미수습자 가족의 요청으로 부위 및 뼈조각의 크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는 단원고·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김한영기자 young@

## 안개에 길 잃은 60대 선장 8시간 만에 구조 '휴~'

○...혼자서 취미로 레저용 보트 항해를 즐기던 60대 선장이 갑자기 긴 안개에 항로를 잃고 해마다 8시간 만에 해경에 구조돼 안도의 한숨.

○...1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한 N호(4.2t) 선장 황모(63)씨는 같은 날 밤 10시에 자신이 거주하는 신안군

비무도로 임항할 예정이었지만 방향을 잃어 다음날 오전 6시50분께 마을어선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 해경에 구조됐다는 것.

○...황씨는 애초 목적지에서 6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개로 방향을 잃은 데다 날까지 어둡고 항해장비 조작이 미숙해 운항을 포기한 상태였다"며 해경에 감사 인사.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